

익산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환경오염” 심각 국도 터널 공사 “숯크리트” 폐기물 불법 매립

국도 77호선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건설 공사 1공구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목포시 달동(달리도) 공사 구간으로 지난2021년 4월 30일 착공하여 2027년 8월 26일 준공 예정이며 발주처는 국도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다.

이번 공사는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연결시켜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 모두는 성실, 건실, 책임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며,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 공사이다.

이곳 달리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파 후 나온 암석을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숯크리트” 폐기물 잔해가 섞여 적재될 뿐 아니라, 1공구 도로 기반공사에 전체적으로 매립된 숯크리트 폐기물과 전선

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토양 오염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마을 주택의 담이 무너지는 등 달리도(목포시 달동)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관리관청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유달동 달리도 마을 통장과 청년회의 제보가 있어, 지난 4월 6일 분사 취재진은 공사현장인 목포시 달동(달리도) 일대 터널 공사 현장 취재에서, 숯크리트 반발재와 전선들이 자원 암과 혼합되어, 도로 기반공사에 성토된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국도 77호선 일부인 터널 숯크리트 공법 공사에서 나오는 숯크리트 덩어리와 리바운드 반발 재는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별도의 처리 없이 터널에서 나온 숯크리트 반발재가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되

지 않고 자원 골재와 혼합하여 매립하고 있어 청정 지역인 달리도 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사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는 터널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발파 후 틈새 및 균열이 간 부분은 원형을 만들기 위해 공정에 필수적인 터널 굴착 작업 시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 재인 숯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제, 시멘트, 골재, 감성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고, 살포시 50% 정도는 벽면에 부착되고 나머지는 바닥에 떨어져 버려지고 섞이게 된다.

한 토목전문가는 “숯크리트가 섞인 토석 및 천연골재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감성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며, 숯크리트(버력 포함)가 혼입된 발파암은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



국도 77호선 1공구 달동 터널공사 현장

가 발생하여 스며들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2차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숯크리트, 페콘크리트, 숯버력 등의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경부에 따르면 숯크리트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는 강알칼리 급

결제가 포함된 독극물), 골재, 감성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기물(페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에 관리관청인 익산청은 더욱 철저히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발파·환경파괴 등으로 인

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역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삼아, 심각한 환경오염 및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국도교통부 익산국도관리청 공사 들은 폐기물 처리 완료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부

전남 공보의 1년 새 25% 감소… “의료 공백 우려”

의과·치과·한의학 공보의 지난해 534→올해 477명
의정갈등 속 현역행·복무 종료·타지역 차출 3중고
거점화 등 안간힘… “지역 의사제, 의대 설립 필요

전남 농어촌 주민 건강의 최후보루인 공중보건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의대 전형 다각화 등을 통한 지역의사 확보와 의료취약지에 대한 병정부 차원의 보건시스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공보의 194명을 신규 배치했다. 이로써 전남 공보의는 총 477명으로, 지난해 534명보다 57명, 비율로는 10.7%나 감소했다.

의과가 229명에서 179명으로, 한의과가 199명에서 190명으로 각각 50명과 9명 줄어든 반면 치과는 106명에서 108명으로 2명 늘었다. 의과공보의 기준으로 2010년

479명이던 것이 15년 만에 3분의 1로 가파르게 감소한 셈이다.

인구 감소, 저출산 풍조와 별개로 의정갈등 속에 복무기간이 3년으로, 일반현역병의 2배에 달해 현역 임명을 택한 전공의들이 급증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사직 등으로 수련과정이 중단되면 즉시 입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올해 전공의 3300명이 임명 대상자로 대거 분류되면서 2023년 904명, 2024년 642명이던 병무청 공보의 선발인원은 올해는 25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의 3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배치되는 인원 역시 크게 줄어든 반면 복무 종료 사회에 복귀하는 전남 공보의만 76명에 달하고, 타지역 전출도 40여 명에 달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보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악순환 되풀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전남 보건지소 216곳 중 의과 공보의가 상주하는 곳은 133곳(62%)에 불과하고 76곳은 순회 진료로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선, 도서지역 보건지소에는 공보의를 2명씩 배치, 24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하고 육지는 면 단위 의료기관 중 공보의가 없는 곳에 우선 배치하는 응급처방을 내렸다. 미배치 된 곳엔 순회 진료와 전국 최초 비대면 진료로 힘겨운 의료공백을 메꿔 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보건지소를 통합해 ‘거점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10년 가까이 지역 의무복무를 골자로 의대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임시 전령을 다각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염선호 기자

돌아온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 수업 참여는 저조

의료정책 반발 심리로 수업 거부 등 방식으로 투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동맹휴학에 나섰다가 최근 복학 절차를 마친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 중 대다수가 수업 거부로 동참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지난달 최종 복학 신청을 마친 재적 학생 중 의예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1학년만은 온라인 형태로 정규수업을 시작하고 이후 수업 참여 상황에 따라 대면 강의로 전환기로 했다.

전날부터 대면 강의 형태로 전환했지만 실제 강의실은 대부분이 비는 등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의대 역시 복학생·신입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해 대다수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그쳤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을 앞두고 일단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로 수업 거부 등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대·조선대 모두 학생들의 수업 결석에 따른 유급 등 학사징계 조치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습 수업이 많은 본과생들의 경우 수업 파행을 장기간 관망할 수 만은 없다. 학사징계도 불가피하다.

각 대학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향 등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선은 학생들의 결석에 대한 유급 등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과생들보다도 본과생의 경우 실습 강의 비중이 커 수업 결석이 장기화되면 향후 졸업과 수련의 과정에도 여파가 만만치 않다. 학과 교수 단위로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교육부는 수업 준비, 기숙사 등 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으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예과생을 포함한 의대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느냐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원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County

군민 한마당
시가행진
읍·면 입장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군민 노래자랑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헌공다례
읍·면 농악경연대회
읍·면 율놀이 대회
길거리 씨름대회
동춘서커스 공연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지리산
南岳祭

제81회 지리산남악제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경연·참여 마당
남악서예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

2025. 4. 19. 토 ~ 20. 일
화엄사 시설지구 및 공설운동장 일원

주최·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구례군 문화재단
문의 | 061) 780-2727